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에 관한 연구*

임 영 자 · 권 진**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A Study of the Present Phenomenon of Togetherness in Morden Korean Fashion

Young-Ja Lim · Kwen Ji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

(2002. 5. 20 투고)

ABSTRACT

We can see various cultural elements appeared in modern fashion, of which Korean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are being re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ways.

This study is to analyse on the basis of togetherness concept Korean traditional elements, which have been considered difficult to interpret by postmodernism and find the ways how to carry on our traditional culture practically in order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globalization of our tradition.

Togetherness means 'with' or 'simultaneously', which also conveys the meaning of common cause and result, addition and annex, opposition and juxtaposition, or accumulation and integ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ogetherness appeared in Korean fash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shows the aspect of mixing and integration of different cultural fashion elements around the globe, which have been made possible in the course of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crossing and synchronization, which means that many different individual fashion elements in terms of time and space are being crossed over and integrated these days. Thirdly, continuation meaning 'without cease' and 'keep going' shows that togetherness is to create a whole new fashion trend by mixing postmodern revivalism and past clothing elements.

Togetherness makes it possible for us to find reasons why tradition aspects are expressed so vividly in the modern clothing, gives us a standard to classify the reasons, establishes an identity and offers theoretical background for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clothing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of our tradition.

Key words : Togetherness(투게더니스), 어울림(Oullim), globalization(세계화)

* 이 논문은 2002년 BK21 핵심분야 연구비에 의해 연구한 것임

I. 서론

21세기 패션의 양상은 다문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적인 요소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원주의, 절충주의¹⁾, 퓨전²⁾, 하이브리드³⁾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이론들의 공통점은 여러 문화가 혼재되면서 혼합되기 전의 문화 성격이 모호해져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는 반드시 여러 문화를 혼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내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문화가 존재하면서도 이전의 문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어우러지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우러짐은 미국 디즈니랜드의 It's a small world나 한국 에버랜드의 지구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곳에 모두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은 인형들을 축소하여 세계를 하나로 집적시켜 놓았다. 그 곳을 관람할 때 디즈니랜드에서는 It's a small world라는 노래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정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며, 에버랜드에서는 지구마을 노래로 세계의 많은 형제들이 한가족이라는 것을 표현하여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사회는 WTO출범 이후 세계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세계 공생의 기치 아래 협력과 공존을 위하여 세계가 손을 잡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특정의 것에 대한 우월주의가 아닌 상대성을 존중하여 다양한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퓨전과는 다른 공생과 세계의 하나됨을 착안하여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의 어우러짐을 살펴보고 복식의 현상을 고찰하려 한다. 이때 어우러짐은 'Togetherness' 현상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연구 할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으로 축소하여 한국의 전통복식요소와 다른 복식 문화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의 수행은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Togetherness'의 경향과 그의 등장배경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복식에서의 현상과 그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적인 현상 분석을 위하여 신문, 복식관련잡지, 국내외의 컬렉션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 현대 패션의 범주로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컬렉션과 유통되고 있는 모든 복식을 범주로 하였고, 해외의 컬렉션에서 선보인 전통복식 디자인도 함께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II.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Togetherness 경향

미국 월트 디즈니랜드의 'It's a small world' <그림 1>이나 한국의 에버랜드의 '지구마을' <그림 2>이라는 곳을 방문하면 전세계가 뱃길로 축소되어 지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뱃길 밖의 육지에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인형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 곳들은 모두 지구의 평화와 조화로운 공존을 상징하며 에버랜드의 '지구마을'에서는 앞의 의미들과 함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적인 공존의 의미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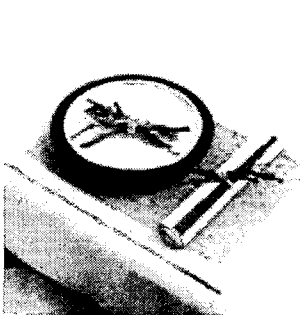


<그림 1> 디즈니랜드의
'It's a small world'



<그림 2> 에버랜드의 지구마을

현재 문화 영역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섞여서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의 퓨전(fusion)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퓨전 문화는 일정의 문화요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인테리어<그림 3>, 패션, 영화, 음식<그림 4> 등의 모든 장르에서 나타난다. 그것에서 보여지는 문화요소들의 혼합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유대와 연관성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전혀 다른 문화요소들이 서로 만나서 어우러지기 이전에 그의 충들을 완화시키는 중간적인 문화접촉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림 3> 퓨전 인테리어



<그림 4> 퓨전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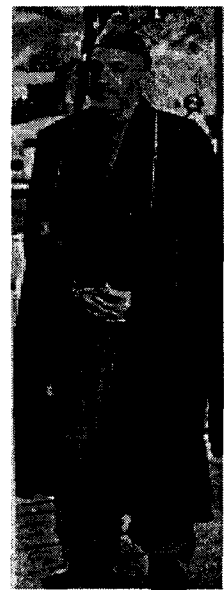
2000년 9월에 개최된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도 'Togetherness' 즉 '어우러짐'이 잘 나타난다. 이때 주제는 새 천년의 숨결이며 그의 부제로는 만남과 아우름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

나고 전통과 동시대의 삶이 만나는 상생의 문화를 연출해 내었다.4)<그림 5>



<그림 5>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2년 2월 미국을 여행한 아프카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임시정부 수반 <그림 6>은 북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쓰는 양피(羊皮)모자, '차탄'이라는 이름의 전통 귀족풍 비단 옷, 동·서 조화를 상징하는 양복 상의, 남부 아프가니스탄 사람의 바지와 짧은 치마가 붙은 '피란툰반'이라는 복합 양식의 복장을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5) 임시정부 수반의 복장의 특징은 퓨전처럼 여러 요소가 믹스되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복식의 특성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의 복식에는 세계의 평화와 조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림 6> 하미드 카르자이 임시정부 수반, 조선일보 2002년 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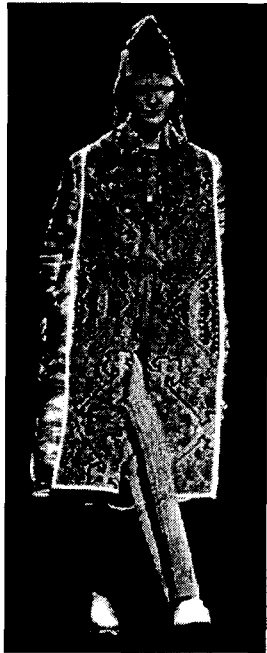
지난 2002년 월드컵전야제는 세가지의 마당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마당의 '설렘'에서는 열기와 짜릿함, 생명의 축제 등으로, 둘째 마당은 '어우름

(Togetherness)'으로 우리나라 가수 조용필과 박정현, 중국 가수 송조영 등 각국의 슈퍼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셋째 마당은 '어깨동무'로 치러졌다.⁶⁾

또한 세계의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하나의 무대에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병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그대로 표현<그림 7>하기도 하고, 에스닉한 텍스타일<그림 8>이나 전통 요소의 디자인이 재현되는가 하면 과거 예술사의 한 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그림 9>하기도 하고 동양적 이미지의 디자인이 서양복의 형태로 표현<그림 10>되기도 한다. 패션에서도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간의 협력과 공존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7> 전통문화의 표현
Mode&Mode NO-314
printemps 2001
Seredin&Vasiliev



<그림 8> 에스닉 텍스타일
Mode&Mode NO-315 ete
2001 Bernhard Willhelm



<그림 9> 과거의
예술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Fashion news june 2001
vol-70 JUNYA WATANABE



<그림 10> Fashion news
june 2001 vol-70
KEITI MARUYAMA

III. Togetherness의 정의와 등장 배경

'Together'는 전치사인 'to'와 'gather'로 파생된 'gedre'에서 유래한 낱말로 '함께', '더불어', '전부', '통틀어', '모두', '동시에', '협력하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⁷⁾ 'to'에는 '~을 위하여'의 의미를 포함하는 목적과 결과, '~위에서', '~에 붙어'의 결합, '~에 딸린'의 부가 또는 부속, '~에 대하여'의 관련, '~을 마주보고'의 대립과 병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⁸⁾ 'gedre'는 현재 gather의 고대어인 gaduri와 gade의 과도기의 낱말로 '모으다', '축적하다', '집적(集積)', '채집', '수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로는 '어우러짐', '함께'나 '더불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함께'라는 낱말은 '같은', '큰'을 의미하는 '흔'과 '때'를 의미하는 '땀'에서⁹⁾

유래하여 영어와 유사하게 해석되어짐을 볼 수 있다.

즉 'Togetherness'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어우러짐'을 의미한다. 이것은 잡종, 혼성물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나 교배, 제설,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서로 다른 장르의 요소들이 만나 생성된 제3의 문화인 퓨전과는 다른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¹⁰⁾ 공생(共生)이나 상생(相生)의 의미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퓨전은 기존의 문화 요소들이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면 'Togetherness'는 문화들 간의 물리적 결합에 의하여 이전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Togetherness'의 등장 배경으로는 크게 문화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문화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20세기의 문화를 주도해오던 포스트모더니즘을 거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지의 차용과 변용, 복고성과 탈장르화 현상에 따른 전통적·고정적 스타일의 탈피, 문화와 성을 뛰어 넘는 다원주의 성향, 역사의 복고성과 이국적 성향으로 인한 무경계적인 절충주의 현상으로 대표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함께 존재하는 다양성에 의한 공존으로 'Togetherness' 즉 '함께'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기저로 작용하였다.

둘째, 개별 국가의 개념이 약화되고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지구적인 울타리안으로 동질화되어, 세계가 하나의 단위체로 통합해 가는 세계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는 동질화 과정이자 동시에 분화의 과정으로 문화적 요소와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를 다원화시키며, 국가와 민족적 개념을 약화시키고, 근대화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던 적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중심에 있던 것을 주변화 시킨다.¹¹⁾ 이러한 세계화는 다양한 문화를 대중들에게 분배하여 공동화 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동양사상의 세계적인 확대이다. 공공(公共)의 안녕(安寧)과 질서를 수호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덕치를 통한 '충'과 '서'에 의한 대화합(大和合)을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의 화합과 조화

를 이루는 평화 추구 이론인 공자의 대동사상은 작고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큰 요소로 직접시킬 수 있는 공생(共生)의 에토스(ethos: 기풍, 정신)가 되었다. 동양의 자연관인 천·지·인 사상¹²⁾은 하늘과 땅, 사람으로 그것들은 다시 물, 불, 공기 흙 등 4가지 우주생성의 필수요소들을 서로 유기적인 조합하여 생성한다는 것으로 통합적인 새로운 문화생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의 문화요소들이 한국적인 문화와 결합하면서 'Togetherness'의 특징을 더욱더 확실하게 정립시킨다. 특히 여러 가지의 반찬이 섞여 있으면서도 각각 재료의 맛을 음미 할 수 있는 한국의 비빔밥 문화나 마당놀이, 굿 등은 그의 좋은 촉매 역할을 한다. <그림 11>의 마당놀이는 한국의 놀이 문화로 마당이라는 공간에 여러 사람들을 모아 어우러질 때 진정한 놀이로 승화되며, 굿¹³⁾은 그 판이 커지면서 한 집안 만이 아니라 한 마을 혹은 몇 개의 마을공동체가 연합하여 제를 올리며 사람들을 어울리게 하였다.¹⁴⁾



<그림 11> 1998 통영사 품어제

사회적 측면으로는 WTO의 출범과 탈산업화·탈공업화에 따른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말 할 수 있다. WTO의 출범이후 세계의 무역체제는 '다자간의 무역체제'로 '세계적' 또는 '범지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¹⁵⁾ 이는 WTO 출범이전에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주변국들과 제3세계의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동반자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범지구적인 세계가 함께 조화롭게 나아가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한 현대의 텔레마티크(Telematique)현상¹⁶⁾은 'Togetherness'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스미디어와 컴퓨터 통신의 발달은 정보의 인식 속도와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하여 새로운 문화를 완전히 습득하기도 전에 다른 문화가 도입되는 현상을 만들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기도 전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어 신문화와 구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혁명은 정보기술과 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강력한 정보통신망들이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¹⁷⁾로 몰고 있으며, 통신 서비스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으로 확산되어 지구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글로벌화 시키고 있다.¹⁸⁾

IV. 현대패션과 Togetherness

1. 패션에서의 Togetherness 등장 배경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원화되고 산업화된 사회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 사상은 모순 안에서 끝없이 유희를 시도하는 역설의 논리로 '경계에 있기', '안과 밖을 넘나들기', '이중코드'의 '미의 불확정성'원리를 받아들이면서 본질주의적 형이상학의 전통이나 발전적 역사관을 거부한다. 차이의 다양성에 대한 주목, 경계 허물기,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 역사주의와 토속성의 강조, 본질주의적 의미 실질과의 연관 거부 등의 내적논리를 반영하고 있으며,¹⁹⁾ 모더니즘을 벗어난다는 의미의 '탈'과 지속한다는 '이후'라는 의미를 함께 지닌 접두어 '포스트'로부터 파생된 말로 단절과 지속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²⁰⁾

해체주의에서는 중심에서의 탈피의 개념을 가진 탈현상으로 복식에서 탈중심, 탈구성, 무질서, 전위 등의 양상을 제시하였다. 쇠퇴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탈중심은 억압된 것들의 복귀현상으로 인해 고전적인 패션 원리를 해체하고, 주체와 중심을 무시하고 비대칭적인 사선의 앞여밈이

등장되었으며, 탈구성으로 의복의 기능성, 목적론을 해체시키고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등의 추가 부각된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²¹⁾ 또한 해체주의 복식은 남녀, 동서양, 지위,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연령, 시공, 미와 추를 구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켜, 이것이 형이상학 혹은 전통적인 미적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미적으로 열린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²²⁾

NEW ORIENTALISM의 영향은 동양적 소재와 서양식 패턴·고대 실루엣과 현대적인 색채·오리엔탈적요소와 사이버의 만남으로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는 절충주의적 현상으로 나타나며 전통복식의 라인을 현대적 소재와 병합하거나, 전통적 문양의 재해석, 전통복식의 착장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연출방법·전통문화 이미지의 사실적 표현 등으로 나타났다.²³⁾

현대의 복수주의, 복수문화주의는 각 나라들 자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의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이제는 서구가 강요한 절대미(絶對美)에 대한 수 백년에 걸친 무의식적 추종에서 벗어남으로써 미의 상대성이 대두되고, 제 3국이 만든 미가 융합되고 있다.²⁴⁾

복식에서의 세계화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동시대인과 같은 의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경향에 민감하고 이들 취향에 공감하는 감성이 조성되었으며, 세계화의 요소로써 민족성, 지역성이 부각되어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활용이 이루어졌다.²⁵⁾

이와 같은 일련의 패션에서의 현상들은 타자의 문화의 요소에 대하여 그의 경계에 대한 벽을 허물고 다른 문화요소에 대한 유입이나 수용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복수문화주의, 해체주의, NEW ORIENTALISM 등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적으로 열린 세계를 지향할 수 있는 기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패션에서의 Togetherness

'Togetherness'는 퓨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퓨전은 다른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되어 색다른 것을 생성하면서 기존의 문화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들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이라면, 'Togetherness'는 퓨전과 같이 여러 문화요소들이 섞이기는 하지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 특성이 모두 특색을 가지고 어우러져 각각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비빔밥의 문화²⁶⁾처럼 여러 가지 맛이 섞여있지만 그 재료가 가지는 각각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전체 안에 분화된 요소 각각의 특징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패션에서의 'Togetherness'는 전혀 다른 복식 요소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의상에 표현되며 어울어지는 것이다. 이때의 어울어짐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할 수 있으며, 세계화와 대화합인 공자의 대동의 의미가 포함된 범인류의 의미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Togetherness'복식의 특성은 <그림 6>아프카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임시정부 수반의 복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패션에서 나타난 'Togetherness'의 성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과 공간이 다른 독립된 다른 차연(差然)의 문화요소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는 공생(共生)성이다. 이것은 Togetherness의 전체의 복식 안에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문화 개체를 인정하면서 조화와 상생(相生)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둘째, 요소들 사이의 결합과 부속, 하나의 합목적 관점으로써의 집적(集積), 공동체 평화와 조화를 나타내는 협력의 의미인 통합성이다. 이것은 독립적인 문화 개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시킬 수 있는 특성으로 서로 다른 복식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저가 된다.

셋째, 과거 대립과 병치를 이루는 요소들이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차성이다. 시간적·공간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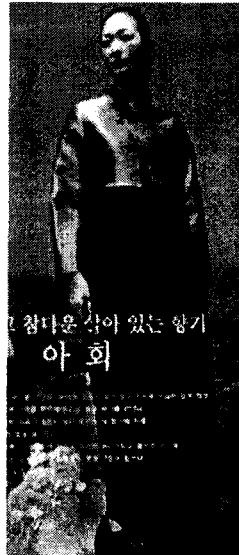
던 문화들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요소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끊임없음과 계속의 의미를 포함한 연속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연속성은 교차성의 결과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이러한 특성은 서로 다른 차원의 공간을 연결해주고,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요소들을 연결해주며, 그것을 통하여 'Togetherness'의 범세계적이고 합목적적인 어우러짐을 완성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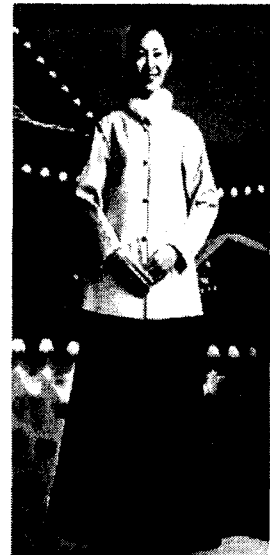
V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의 특성

1. 공생(共生)성과 통합성

독립적 문화 개체를 인정하며 차연(差然)의 문화요소들이 어우러져 상생하는 공생성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던 복식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어우러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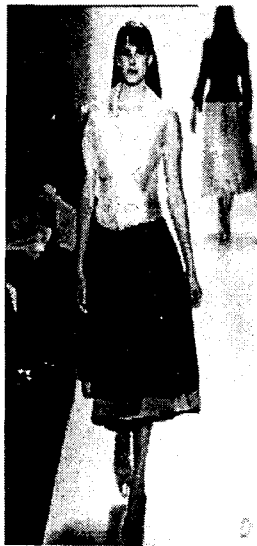
<그림 12> 한복 2001년 1월 아희



<그림 13> 2001년 겨울 들실나이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의 공생성은 한국적인 요소를 주로 하여 다른 복식의 요소가 상생하는 것이 있으며, 현재의 일상복화된 서양복식의 형태를 주로 하여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함께 표현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생활한복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생활한복으로 한복의 전통미를 유지하면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좀더 편리하도록 변형시킨 것으로 전통의 평면재단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활동적인 측면을 고려한 현대 일상복의 재단법이 부분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서양복식인 일상복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디테일이나 텍스타일, 색상에서 한국의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4>은 서양복의 A라인의 실루엣에 전통한복에서 사용되는 실크에 수목화를 그려넣어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5>는 H라인 실루엣에 전통적인 조각보를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활용하였다.



<그림 14> 김순자
NewYor collection
2002년 S-S



<그림 15> 홍은주
2002년 SAFF S-S

'Togetherness' 현상에 나타나는 통합성은 공생성의 의미에서 확대된 집적(集積)과 협력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전통의 디자인과 현대의 디자인이라는 상호 독립된 요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시공을 초월한 대화합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파생되는 'Togetherness' 현상의 근거가 되며, 과거 동시대 타지역에 존재하던 서로 다른 복식문화가 고속의 정보와 통신의 교환으로 공유됨으로써 패션에서의 'Togetherness' 현상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2. 교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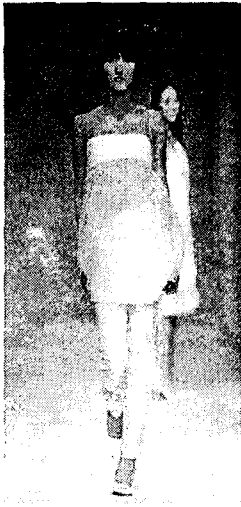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의 교차성은 문화의 교차와 형식의 교차로 대표된다.

문화의 교차는 공생성과 통합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저로 작용하게 된다. 타자의 복식요소들이 공생하기 이전에 전혀 다른 요소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독립적으로 존재한 후, 병치된 다른 요소를 점차 인식하면서 문화의 요소들이 교차되어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6>의 상의는 과거 동시대에 서양에서 존재하였던 남자의 바지와 전통한복의 여성 치마 디자인이 현대에 교차되어 다른 복식요소가 함께 나타난다. 이는 같은 시대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다르게 존재하던 서양과 동양의 복식문화가 교차하여 'Togetherness' 현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형식의 교차는 문화의 교차 이후 의복의 원리들이 교차되는 것을 의미한다. 복식에서의 원리는 패턴과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림 16>의 경우 문화가 교차되면서 동양식 상의 평면재단의 원리와 서양식 바지의 입체 재단의 원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형식을 교차시키고 있다.

<그림 18>의 현대 복식은 <그림 17>의 과거 조선시대의 여인의 복식과 유사한 실루엣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6>의 의상은 한국적 이미지를 전통복식의 실루엣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림 17>에서 나타나는 전통한복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직선의 비례나 공간의 배치의 원리를 활용한 형식의 교차성을 나타낸 복식이다.



<그림 16> 이영희
2002년 SAFF S-S



<그림 17> 1748년 石泉閑遊
조선복식미술



<그림 18> 앙스모드
안윤정 2000년 11월



<그림 19> 김지혜
paris collection 2001년 S-S

전통적인 요소를 가진 현대복식이나 생활한복에 서는 과거 남성들만이 착용하던 활동성 있는 전통 복식을 현대의 사회진출이 많아진 여성의 복식으로 디자인하여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복식에서 나타나는 성의 교차성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 <그림 16>은 성의 교차성으로도 표현된다. <그림 19>에서

보여지는 대나무소재의 조끼는 과거 조선시대 남성들이 여름에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의복 속에 착용하였던 등거리가 현대 의상에서 여성의 의외로 표현되어 남성의 복식요소와 여성의 복식 요소를 교차한 성의 교차성과,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의 교차성이 나타나기도 하며 안과 밖이 서로 바뀌어 교차된 형식적인 교차도 함께 보여진다.

3. 연속성

'Togetherness'의 의미에는 끊임없음과 계속의 의미를 포함한 연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연속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복고성에서 보다 확대된 의미이다.

현대 생활한복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통한복의 디자인은 하나의 큰 디자인으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생활한복은 매우 다양한 각도로 과거의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있다. 생활한복 디자인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나타났던 디자인을 그대로 착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디자인을 현대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 있다. 특히 전통의 것을 그대로 착용하는 과정에서 전통 복식에 나타난 모든 디자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하나의 대표되는 디자인으로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표현된 복고성은 특정의 요소에 대한 과거의 재현이지만, 'Togetherness'현상에 나타나는 연속성은 고래로부터 현대까지의 전통 요소를 적절히 믹스하여 하나의 복식에 여러 요소들을 함께 표현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전통복식에 대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20>의 복식은 우리나라 역사가 생성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포의 형태로 아주 오랜 과거를 현재의 시간과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림 21>은 조선시대 중기 여성복식의 실루엣을 재현하면서 현대의 전통한복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현재에서도 과거를 느낄 수 있는 연속성이 보여준다.

한국의 이미지가 표현된 복식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별로 다르게 존재하던 다

양한 전통복식의 디자인이 여러 모두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를 모두 보여주는 한국적 디자인의 시간적 연속성을 의미한다.



<그림 20> 한복
2001년 1월 이영희
2002년 SAFF S-S

<그림 21> 한복
2001년 1월 아라가야

V. 결 론

현대에는 다양한 문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현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이는 과정을 바탕으로 퓨전과는 다른 어우러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것으로 이 어우러짐은 'Togetherness' 현상으로 정의하고 그 현상을 분석하였다. 'Togetherness' 현상은 한국의 비빔밥의 문화처럼 여러 가지 문화요소들이 섞여있지만 그의 속에 포함된 개개의 구성요소 특성이 살아 서로 어우러져 범지구적인 의미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라 정의된다.

'Togetherness'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복수문화주의, 해체주의, NEW ORIENTALISM 이론들에서 발전된 형태로 시공을 뛰어넘어 여러 요소들이 공생할 수 있는 열린 세계를 지향할 수 있는 기

저로 작용하고 있다. 즉 'Togetherness' 현상이 표현된 복식은 개인에게 입혀지는 개별적인 의상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의 다양한 복식요소가 결합되어 범지구적인 소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에서의 'Togetherness'는 하나의 의상에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포함하여 어울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세계화의 범인류의 대화합을 나타내며 그의 성격으로는 공생성, 통합성, 교차성, 연속성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의 특성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복식요소들과 현재의 복식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졌으며,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던 서양복식의 요소들과 동양복식의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생하였다. 그것에서 확대된 집적(集積)과 협력의 의미인 통합성은 과거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병치하던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교차성이 표현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복식디자인이 모두 병존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계속적으로 이어주는 연속성으로 구분된다.

한국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은 글로벌화된 현대사회를 연결해주며, 서양과 동양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의 벽을 넘어 세계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현대 패션에 나타난 'Togetherness' 현상은 시간적·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한국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복식문화에 있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성의 기회가 되며, 미래의 디자인개발의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 경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2) 신재룡, 현대패션에 반영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 3) 임영자·한윤숙,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2001. 8. pp113-134
- 4) 대구문화방송, 2000년 9월 16일 방영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
 - 5) 조선일보 2000. 2. 27
 - 6) <http://kids.hankooki.com/kids/200206/kids20020601185009c9000.htm>
 - 7) Webster 영영사전. p.104.
 - 8)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1권, 옥스포드출판부, 1996, p.105.
 - 9) 금성관 국어 대사전, 금성출판사, 1998, p.3340.
 - 10) 백인옥, 디지털 복제 시대의 문화, 서울 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8.
 - 11) 유순례, 20세기 한국여성복에 나타난 근대성·탈근대성·세계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 p.25.
 - 12) 이용우,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열음사, 2000, p.206.
 - 13) 이상일, 전통과 실험의 연극문화, 눈빛, 2000.
 - 14) 이상일,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출판부, 2000, p.26.
 - 15) 여택동·전정기 공저, WTO와 국제통상, 울곡출판사, 1988, p.18.
 - 16) 텔레마티크(telematique): 프랑스어로서 통신(telecommunication)과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informatique)의 합성어이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정보의 생성과 처리, 유통 등의 역할을 컴퓨터와 통신이 맡게되었음을 의미한다.
 - 17) 제프리 E., 박상철옮김, 글로벌 경쟁력, 세종연구원, 2001.
 - 18) 이관현, 글로벌 전략, 도서출판석경, 2001, p.23.
 - 19) 김혜숙·김혜련 공저, 예술사상, 이화여대출판부, 1998, p.309.
 - 20) 김혜정·임영자, 포스트모더니즘 의류광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21호 1993, p.104.
 - 21) 경은주, 현대 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2, p.2.
 - 22) 경은주, 앞글, p.88.
 - 23) 임영자·김선영,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50권 4호, 2000. 7, p.50.
 - 24) 이민선,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 문화, 한국복식학회 제 51호 7권, 2001. 11, p.32.
 - 25) 유순례, 앞글, 2002. 2, p.91.
 - 26) 2000년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집행위원장 안상수 인터뷰-거울, 창문 그리고 마당, Icograda Oullim 2000 News, 2000. 615, p.6.